

'무주반딧불축제' 야간형 축제로 농·특산물 활용 신메뉴 출시

군, 종합계획 설명회 자리서 축제 방향 제시·발전방향 모색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야간형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11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은 축제 방향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설명회는 제26회 축제의 추진 방향과 공간구성계획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과 대의원 축제 지원단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보고자로 나선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김승겸 감독은 "무주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공간 구현을 위해 축제공간과 콘셉트, 환경 등을 연출하고 야간형 축제로 전환한 점이 특징으로 신규 콘텐츠 야간 집중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제장 전체 8개 마당 중 한공루 별빛정원, 등나무어울터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남대천 불꽃 공연과 같은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야간형 축제로 성장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보고해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반디누리관 반디마루광장 봉봉프락 놀이터 반딧불 참참장터 등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에서 11일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종합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으로 축제장을 구성하고 반딧불이 신비탐사 생태탐험 나화놀이 등을 선보이면서 탐방객들로부터 큰 호응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해 지남공원(한동루)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명예문화관광축제이자 2021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할 만큼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정평이 나있다"

며 "깨끗한 자연의 품속에서 반딧불이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는 무주에서의 휴식과 감동으로건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디별 소풍 조선왕조실록 적산산사고 이안행렬, 안성 나화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뮤직라이팅 공연 남대천 드론쇼 등 신규 프로그램들도 선보이게 돼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오미자·사과 활용... 메가엠피씨커피, 상생 협약 본격 성과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상생 협약을 맺은 메가엠피씨커피(이하 메가커피)가 장수군 농·특산물인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여름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메가엠피씨커피에서 선보인 '장수 오미자 스무디'는 장수군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스무디에 오미자 비건 젤리를 곁들인 음료다.

장수 오미자는 고원에서 재배돼 선명한 색감이 두드러지고 단맛과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의 다섯 가지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 유명하다.

또한 '장수 오미자 비건 젤리'와 '장수 사과 비건 젤리'는 장수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해 요즘 20~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거니즘에 맞는 젤리를 개발해 만든 메뉴다.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 사과, 오미자, 한우 등 장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가엠피씨커피, (주)족발야시장, 제너시스 비비큐 그룹, 역전할머니맥주 등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메가엠피씨커피의 '장수 오미자 스무디' 출시를 통해 오미자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남성현 산림청장과 현안 논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11일 산림청을 방문해 남성현 산림청장을 예방하고, 산림분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복행보를 이어갔다.

진안군은 군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림 자원이 풍부해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전 군수는 이를 활용해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림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산림분야 특성화학교 지정,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림교육원의 진안군 이전, △지역권 친환경 산림교육원 조성사업이다.

전 군수는 산림분야 특성화학교 지정과 산림교육원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에 맞춰 설명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구간에 위치한 도유림(신광제)에 약용 경관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권 친환경 산림교육원 조성사업'은 정부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진안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산림문화자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가치를 높여 나가기에 충분하다"며 "산림청과 진안군의 공동목표인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물, 유기농 미니단호박 라이브커머스 진행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이 12일 진안고원물에 신규 입점한 유기농 미니단호박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12일 화요일 14시 네이버쇼핑라이브의 도전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에는 제철 농산물인 '미니단호박'을 판매한다.

성수면 정용기 농부의 미니단호박은 비가림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며, 진안고원의 특산물 고랭지 기후에서 키워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다. 가장 맛이 좋은 보우장 품종을 '내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재배해 신상품 입고와 동시에 진안고원물의 베스트 판매상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방송은 해당 농가와 진안고원물 운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진행 및 활용하며, 단호박의 효능을 소개하고 단호박 크림수프, 에그슬러트 등 미니단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생방송 중 5kg이상 구매 시 맛글소통창의 선착순 구매인증 20명에 한해 단호박 1방(2개입) 약 1kg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진안고원물은 방송판매와 더불어 7월 12일과 20일 화요일에 35% 가격할인을 진행한다. 장바구니 쿠폰으로 200매 한정으로 1인 1쿠폰으로 발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실시

장수군은 농업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을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7개 읍·면 농업인 175명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사용 빈도 높은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조작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안전운행 등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농기계의 기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작업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동북권역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 개최

진안군은 11일 전라북도과 전북청년허브센터(재)전북청년정책연구소(센터장 박광진)와 함께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2년 동북권역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주관으로 청년정책 이해도 향상 및 지역 청년간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5개 권역을 순회하는 행사로 진안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행사는 진안 청년협의체를 비롯해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청년들과 제7기 청년정책 포럼단, 청년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창열 부군수가 회의에 참석한 동북권 청년들을 격려하고, 전용태 도의원 및 이투라 군의원, 전북청년정책팀이 행사 마지막까지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어졌다.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진안청년투니플로우와 진안출신 오한솔 무용가와 11명의 무용학원 아이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왕, △2021년 소통학교 정책제안, △2022년 청년정책 토론 및 공감정책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22일까지 신청자 모집

무주군이 올해 하반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주에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군에 따르면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농업기술센터 귀농취준팀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창업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에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지 만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예정)인이 대상이다.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촌·비농업인들은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구입 하우스·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자금이다. 주택구입은 대지구입을 비롯해 주택구입 및 신축 등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귀농취준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5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은창과장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며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지 살펴본 후 신청·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지원과 귀농취준팀(320-2851~2,4)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